

국토교통부, “한-파나마 철도협력 한단계 높여”

- 30일 주한파나마대사와 오찬 간담회… K-철도 수출 등 논의 -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7월 30(화) 아타나시오 코스마스 시파키(Athansio Kosmas Sifaki) 주한 파나마 대사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양국 간 철도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.
- 이날 오찬은 8월 초 임기 만료를 앞둔 코스마스 대사에게 그간 양국간 협력 증진에 기여해 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, 앞으로도 양국 인프라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가교역할을 당부하기 위해 진행되었다.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1일 파나마 대통령 취임 경축특사로 파나마를 방문하여, 파나마 신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파나마 대통령 관심 사업인 ‘파나마시티-다비드 철도사업’에 대해 한국 참여를 요청받았으며,
 - * 파나마 신정부는 파나마시티-다비드 철도 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간 연결성 제고, 산업 발전, 일자리 창출, 관광 활성화 등 경제발전 도모
- 동 사업의 실질적인 협력방안 논의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GICC(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) 행사(9.10~12)에 파나마 공공사업부장관, 파나마 대통령실 국가철도비서관을 공식 초청하였다.
- 이날 오찬에서 박 장관은 “대사님의 지원으로 파나마 철도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등 한-파나마 인프라 협력이 한층 강화되었다”며 각별한 감사를 표하고,
 - “한국은 철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, 우수한 조건의 금융 조달능력을 보유하고 있어, 한국 기업들이 파나마 철도사업 참여 시 파나마 국토개발과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 - 이에, 코스마스 대사는 한국 정부의 협력과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, “한국의 철도기술과 역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, ‘파나마시티-다비드 철도사업’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화답하였다.

- 국토교통부는 우리 기업들이 메트로 3호선, 가툰 천연가스 복합화력발전소 등 파나마 주요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, 파나마의 수주 기반을 공고히 하고, 파나마를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중남미 해외진출이 확대 될 수 있도록 G2G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
2024. 7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